

탐방시나리오

계절별 시나리오

제목 : 범주사자연관찰로(겨울)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

법주사자연관찰로 계절별 시나리오(겨울)

1. 만남과 인사나누기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에도 속리산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자연해설을 하고 있는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 국립공원은 이런 곳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탐방할 이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모두들 잘 알고 있네요.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이지요. 그럼 아무 곳이나 지정하여 관리할까요?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과 생태 그리고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이 있는 곳을 현재의 우리가 훼손 없이 이용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현재의 모습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속리산은 백두대간의 등줄기로 겹겹이 펼쳐져 산세가 웅장하고 화양계곡, 쌍곡계곡, 만수계곡 등 맑고 아름다운 계곡과 법주사, 공림사, 각연사 등의 문화재가 있어 1973년 3월 우리나라 20개의 국립공원 중 6번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3. 왜 속리산이라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고 이름에 뜻이 있을 겁니다. 이곳은 원래 산봉우리가 아홉 개가 있다 해서 구봉산이라 부르다가 신라시대 고승인 진표율사가 불상을 싣고 절을 짓고 수도할 곳을 찾아 구봉산으로 오던 도중, 보은군 회인근처에서 소달구지를 탄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던 황소가 진표스님을 보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며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이를 보고 수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진표스님에게 물어보니 ‘어리석은 짐승이라도 부처님을 알아보고 존경의 뜻을 표현하거늘’ 하니 농부들이 미천한 짐승도 부처님을 알아보는데 하물면 사람이 몰라 볼 수 있겠느냐며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낫으로 머리를 깎고 진표스님을 따라 구봉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세속 속(俗), 떼놓을 리(離)로 ‘속세를 떠나는 산’ ‘속세에 떨어져 있는 산’이란 뜻

의 속리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는 잠시 세상과 떨어져 속리산의 경관,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세요.

4. 겨울의 속리산

여러분들 이곳에 보시면 낙엽이 떨어진 숲이라 생명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하면서 겨울에 동물들과 식물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고 봄을 준비하는지 알아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가 밟고 있는 흙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 중 하나가 흙입니다. 흙은 식물이 살아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물을 공급해주며 식물들이 죽어 썩으면 흙속의 미생물이 분해하여 다시 양분을 만들어 나무와 풀 그리고 작은 곤충과 흙속 동물들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곳은 풀이 나지 않고 만져보지 않아도 단단하게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곳에 낙엽이 싸이고 풀이 난 곳의 흙을 보면 부드럽습니다. 나무와 풀이 자라는 곳의 흙에는 흙냄새가 난다고 하죠. 이것은 토양미생물인 방사선균에 의해서 이러한 냄새가 나는 것이고 이 방사선균이 내는 물질은 인간에게 이로운 항생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물질을 추출하여 중금속이나 독성물질을 분해, 소멸시키는 약품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도시에 살 때는 흙을 밟을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도로에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흙을 밟고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흙은 사람이 걸을 때 발에서 주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흙의 이로움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옆으로 길게 서주세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손가락으로 눌러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밟지 않은 땅을 눌러 보세요 느낌이 다르지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의 숲길을 걸으실 때에는 아무 곳이나 밟지 말고 숲속 동물들이 지나간 자리가 그곳으로 다니면 자연 훼손이 최소로 줄어든 것입니다.

6. 사계절 푸른빛을 잃지 않는 침엽수

겨울인데도 푸른빛을 간직하고 있네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나무의 잎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지요? 예 바늘 같은 침처럼 생겼지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침엽수라 합니다. 반대로 손바닥처럼 잎이 넓은 것을 활엽수라 부르지요.

왜 침엽수만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고 잎이 남아 있는 걸까요?

식물들은 적당한 온도에서 물과 공기와 빛으로 광합성을 하며 성장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잎이 큰 활엽수의 경우 겨울에는 성장하기에 낮은 온도로 잎을 보존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가 많아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어 겨울을 준비하고 봄, 여름, 가을동안 준비된 에너지로 겨울을 나고 봄의 새싹을 준비합니다. 반대로 여기보이는 침엽수는 추운지방에서도 살 수 있도록 잎이 가늘고 작게 변화되어 겨울에도 푸르게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7. 속리산의 자랑 소나무

속리산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크고 아름답게 자란 소나무를 보셨을 겁니다. 못보신 분들은 가시는 길에 우측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 소나무는 조선시대 정이품이라는 벼슬을 받은 소나무입니다.

조선 세조임금이 요양을 하기위해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임금이 탄가마가 걸리지 않게 가지를 올려주었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 때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때 세조임금은 소나무에게 정이품이라는 지금의 장관급 벼슬을 내려 지금까지도 벼슬을 받은 소나무로 속리산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소나무는 1962년 천연기념물 10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옛날 임금이 사는 궁궐을 지을 때에는 100% 소나무로만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찰을 지을 때 소나무를 이용하는데 제가 스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나무는 죽으면 속까지 썩어 부서지지만 소나무는 썩어도 중심의 목심부분이 단단하게 남아 건물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줄기부분이 적갈색으로 보통 적송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떨어진 잎을 보면 바늘모양의 잎이 두개로 모여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래종인 리기다소나무의 경우 잎이 세 개가 모여 나며 잣나무의 경우 5개가 모여 납니다.

8. 봄을 준비하는 생강나무의 겨울눈

여기 다른 곳에서 준비한 이 나무의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립공원이라 저도 이곳에서는 나무 등을 꺾지 않습니다. 대신 많이 자라는 다른 곳에서 준비하지요. 이 나무의 가지를 꺾고 비비면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지요? 예 레몬향이나 허브향처럼 새콤한 냄새가 나지요. 옛날에 살던 분들은 이 나무의 가지에서 나는 냄새가 생강냄새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럼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생강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동그란 것과 뾰족한 것이 가지의 중간과 끝에 붙어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 보이는 동그란 것은 봄이 되면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노란 꽃을 피우는 꽃눈이고요, 뾰족하게 생긴 것은 꽃을 피우고 난후 잎이 되는 잎눈입니다. 추운겨울이라도 식물들은 봄을 준비한답니다.

9.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겨울이 되면 우리는 숲속에서 볼 수 없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은 춥고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철을 살아남기 위해 가을까지 먹은 음식을 몸속에 지방 등 영양분으로 비축하여 겨울이 되면 땅 속이나 나무 밑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겨울잠은 추위와 먹이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동물의 환경적응 방법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로는 곰, 고슴도치, 도마뱀, 미꾸라지, 너구리, 다람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체온유지가 잘되는 장소에서 거의 죽은 것과 같이 1분에 몇 십 번씩 뛰는 심장의 활동도 10번안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곤충 등은 알이나 번데기 상태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성충이 되어 활동을 합니다. 동물중에 겨울잠을 자지 않는 동물은 털갈이를 통해 추위에 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털갈이 하셨네요. 여름에는 얇은 면티를 입다가 겨울이 되면 두툼한 옷으로 갈아입으니까 털갈이 한 셈이죠.

10. 눈이 숲에 주는 영향

겨울이 되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눈이 온다는 것 일겁니다. 겨울철에 내린 눈은 숲 속에 쌓여 서서히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봄이 되어 땅이 녹으면 계곡으로 흘러나와 봄 가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적은 편이 아니지만 계절적 편중이 심하여 여름철에 절반정도가 내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봄에는 내리는 비의 양이 부족해 모내기를 하는데 어려

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숲속에서 저장되었던 물이 부족한 봄에 도움을 준답니다.

11. 겨울 철새

가을부터 겨울까지 속리산엔 특히 새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오목눈이, 딱새, 쇠딱따구리, 큰오색딱따구리 등입니다. 계곡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텃새와 마찬가지로 이 새들은 가을부터 서로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새나 쇠딱따구리, 오목눈이 등이 함께 모여 있는 풍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문장대 가는 길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간혹 그곳에 겨울철새인 원앙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사람의 왕래가 많아서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콩새, 동고비, 말뚝가리 등 많은 종의 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다가 새소리가 들리면 주위를 살펴보세요.

12. 마무리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겨울 숲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학교에서나 책에서 보고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시면 돌아가셔서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속리산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시어 속리산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자연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설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